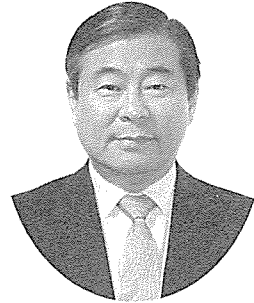


# 한국물리학회

## 물리학의 발전과 응용 및 보급에 기여



李忠熙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연혁〉 한국물리학회는 1952년 12월 7일 6.25동란시 임시수도 부산에 자리 잡은 서울대학교 본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에 당시 서울대학교 총장이신 최규남박사, 부회장에는 박철재 박사를 선출함으로써 출범하게 되었다. 창립회원인 34명으로 최규남, 박철재, 권녕대, 조순탁, 윤세원, 지창렬 회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규남초대회장 재임기간(1952~60)에는 6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국물리학을 뿌리내리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였다.

제2대 권녕대 회장(1961~70) 때에는 물리학회지인 「새물리」와 영문학회지 The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JKPS) 가 창간되었으며 경북, 전남, 부산·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부가 설치되고 입자물리학, 고체물리학, 물리교육의 3개 분과가 창립됨으로써 학회의 기본 골격이 만들어졌고 69년에는 IUPAP에 가입하므로써 국제적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제3대 한준택(1970~71), 제4대 지창렬(1971~72)과 제5대 조순탁(1972

~74) 회장 재임시에는 물리교육, 원자핵 물리학, 응용물리학, 열 및 통계물리학 분과가 창립되었다. 제6대 윤세원(1974~77), 제7대 김희규(1977~79), 제8대 이상수(1979~81) 회장 재임시에는 학회에서 일반물리학 실험교과서를 발간 보급하였으며 75년 6월28일부로 학회는 사단법인으로 개편, 인가를 받았으며 제3회 중앙문화대상 학술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제9대 조병하(1981~83), 제10대 정중현(1983~85), 제11대 김정흠(1985~87) 회장 재임시에는 플라스마 물리학 분과와 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가 창립되고 충북지부와 강원지부가 설치되었으며 학회지 「물리교육」이 창간되었다. 제12대 고윤석(1987~89), 제13대 안세희(1989~91)과 제14대 이주천(1991~93) 회장 재임시에는 아시아태평양물리학회(AAPPS)에 창립회원으로서 가입하는 등 국제협력활동이 강화되었다. 또한 홍보잡지 「물리학과 첨단기술」이 창간되었다. 제15대 이충희 회장(1993 ~) 취임후 학회사무실 확장

과 업무 전산화 추진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KPS 텍스트의 개발로 학술지 편집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IUPAP 등 국제협력 강화와 대학 물리학과과서 발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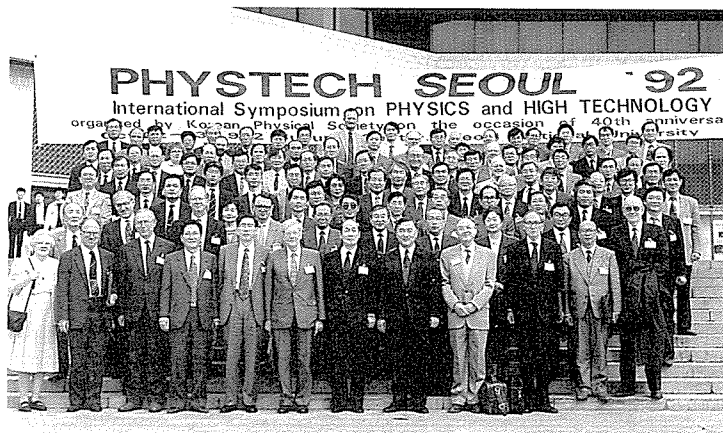
〈회원〉 52년 학회 설립당시 회원은 34명이었으나 94년 현재 회원수는 4천1백35명(이중 평의원 3백86명, 준회원 7백61명)으로서 42년간 회원이 1백20배로 증가하였다. 회원은 평의원,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찬조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1 참조) 회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대학에 근무하는 회원이 56.9%로 제일 많고 다음은 연구소 11.8%, 산업체 5.9%, 중학교 교사가 6.1% 이다. (표2 참조) 회원의 학위별 분포를 보면 박사 1천2백21명(29.5%), 석사 1천2백93명(31.3%), 학사 1천4백62명(35.4%)이다. (표3 참조) 전국대학의 물리학과에는 분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물리학과가 74개, 물리교육과가 8개, 과학교육과가 6

개로 되어있다.

〈학회예산 및 사무실〉

93년도 학회 예산은 2억3천만원으로 회비와 논문게재료 등 회원이 기여하는 부분이 45% 이고 나머지 55%는 과총, 과학재단 등의 기관보조금과 산업체의 찬조금 및 광고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재정적자로 어렵고 예산의 60% 정도가 회지 발간비로 지출되므로 정부의 학회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학회사무실은 전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있다 가 76년부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건물로 이사하여 현재에 이른다.

〈학회조직〉 학회에는 총회, 평의회, 이사회가 있으며 이사회는 회장 1명, 부회장 5명을 포함 20명의 이사로서 구성된다. 부회장겸 간사장은 총무, 재무, 사업, 섭외, 편집 간사로 구성된 간사회를 총괄하며 학술지, 홍보잡지 편집위원회, 물리학 용어 심의위원회, 재정위원회 등 8개의 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7개의 지부와 10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현재 학회 임원은 회장 이충희(표준과학연), 부회장은 박만장(고려대, 간사장 겸임), 송희성(서울대, 학술지편집위원장), 최병두(서울대, 홍보잡지 편집위



◇ 한국물리학회 창립 40주년 기념「물리학과 첨단기술 국제 심포지엄」의 참가자와 함께

원장), 윤수인(부산대), 정석종(전남대) 등 5명이며,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 20명으로 김영기(전북대), 김호길(포항공대), 손기수(경북대), 신희명(서울대), 안세희(연세대), 윤희중(충남대), 이완호(중앙대), 이용태(삼보컴퓨터), 이주천(과기원), 이창효(한양대), 장근호(쌍용컴퓨터), 장준성(서울대), 정근모(고등기술연구원), 조성호(고려대) 등이고 감사는 민석기(과기연), 이병기(강원대) 등이다.

주요 학술활동

〈정기총회 및 연구논문 발표〉 학회는 1년에 봄, 가을 2회에 걸쳐 정기총회와 연구논문발표회를 갖고 있으며 학회 창립 이래 현재까지 68회의 총회와 연구논

문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발표논문수는 62년에 20편, 72년에 1백12편, 82년에 3백12편, 92년에 1천1백88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장족의 발전을 가져왔다.

〈학회지 등 발간〉 국문학회지로는 「새물리」(1961~, 격월간), 「응용물리」(1988~, 격월간) 「물리교육」(1982~, 연 2회)이 있고, 영문학회지로는 「The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JKPS, 1968~, 격월간)가 있으며 연 2회 회보(총회발표논문 초록집)와 홍보잡지 「물리학과 첨단기술」(1992~, 계간)을 발간하고 있다.

영문지 JKPS는 92년부터 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 (ISI)의 공인을 받아 국제과학기술논문 색인지(SCI)에 기록되는 국제학술지로 인정을 받게되어 한국물리학의 국제적위상을

회원구분	회원수(명)	비율(%)
정 회원	3,335	80.6
준 회원	761	18.4
학생회원	35	0.9
평 의 원	(386)	(9.3)
명예회원	4	0.1
계	4,135	100.0

〈표1〉 한국물리학회 회원 현황

기관구분	회원수(명)	비율(%)
대 학	2,355	56.9
연구소	488	11.8
산업체	244	5.9
중고교	250	6.1
기 타	798	19.3
계	4,135	100.0

〈표2〉 한국물리학회 회원의 기관별 분포

학위구분	회원수(명)	비율(%)
학 사	1,462	35.4
석 사	1,293	31.3
박 사	1,221	29.5
기 타	159	3.8
계	4,135	100.0

〈표3〉 한국물리학회 회원의 학위별 현황

높였다.

홍보잡지는 물리학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회원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첨단기술 발전 현황을 산업체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리학회는 물리학 용어를 우리말로 정립시켜 물리학 연구와 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81년에 "물리학 용어집"을 발간하였으며 88년에는 개정판을 발행하였고, 대학실험 교육의 표준화와 상향평준화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물리학 실험교과서」를 발간하고 있다.

<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국제협력> 학회가 주최한 최초의 국제심포지엄은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1982년 개최된 '서울국제반도체 심포지엄'으로서 매 2년마다 국제적 석학을 초청하여 6회에 걸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밖에도 제 14회 물리학에 응용되는 이론에 관한 국제회의(1985년), 제 4회 아시아태평양물리학학술회의(1990년), 학회창립 40주년기념 '물리학과 첨단기술 국제심포지엄' (PHYSTECH SEOUL '92)을 개최하여 우리나라 물리학이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이론물리학센터(ICTP)와의 협약체결(1978년), 국제순수 및 응용물리학회(IUPAP) 가입(1969년), 국제광학위원회(ICO) 가입(1975년), 아시아태평양물리학 협회(AAPPS) 가입(1988년)과 일본물리학회(1986), 일본응용물리학회(1988), 독일물리학회(1991), 미국물리학회(1992)와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체결등 국제기구 및 외국물리학회와의 국제교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분과 및 지부활동> 동일 또는 유사전

문분야의 연구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 등에 도움이 되도록하기 위해 설립된 분과가 10개로서 입자물리학(1967~), 원자핵물리학(1972~), 고체물리학(1968~), 응용물리학(1973~), 열 및 통계물리학(1973~), 물리교육(1970~), 플라스마 물리학(1981~), 광학 및 양자전자학(1981~), 원자 및 분자물리학(1992~), 반도체 물리학(1993~)분과 등이며, 각 분과에서는 독자적으로 워크숍, 심포지엄, 세미나 및 월례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프로시딩을 발간하고 있다.

학회는 지역적 필요와 지방의 물리학 발전을 위하여 대구·경북지부(1963~), 광주·전남지부(1964~), 부산·경남지부(1965~), 대전·충남지부(1967~), 전북지부(1969~), 강원지부(1982~), 충북지부(1985~) 등 7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각지부는 학술대회, 세미나, 초청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지부소식, 회원활동에 관한 인쇄물을 발간하고 있다.

<학회상> 한국물리학회 상으로서 성봉물리학상(1993~), 학술상(1993~), 논문상, 장려상, 공로상 등이 있으며, 성봉물리학상은 한국물리학계의 원로이신 고(故) 성봉 권녕대 박사의 유지에 따라 영식 권오석 박사의 기금기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국내학회중 최대의 상금을 수여하는 상이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 참가>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92년부터 매년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 참가할 우수 중·고등 학생을 선발하여 물리올림피아드 여름학교와 겨울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92년도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 처음으로

대표단(학생 5명, 단장 신희명, 부단장 김수용)을 파견하여 참가국 37개국중 은메달 1개를 획득 종합성적 12위를 차지하였고 93년도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는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장려상 1개를 받아 41개국중 종합성적 1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인접 학회와의 공동학술활동> 물리학과 관련된 인접학회인 광학, 진공, 자기, 화학, 전자, 전기, 재료, 금속, 요업학회 등과 공동으로 분과별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에 공동으로 참가하고 있다.

## 학회의 미래상

우리는 불과 6년 후면 21세기를 맞이하게 된다. 21세기는 사회,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과학기술발전이 있어 물리학의 역할은 지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회는 물리학의 저변확대를 위해 산업체에 종사하는 물리학자들이 물리학회 회원으로 참여토록 산업계의 흥미와 호응도를 높여야 하며 물리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여 초·중·고 과학교육과 대학의 물리교육이 산교육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물리교육 강화에 대한 정책 건의와 기초과학의 육성 등 과학기술 정책을 건의하는 학회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선도해 나가며 학술적인 면에서도 영문학회지 JKPS의 질을 ISI의 국제공인을 시발점으로 하여 명실공히 국제학술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